훈민정음 전에도 고유 글자 있었다

글_이종호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훈민정음’이란 우리말을 적은 글로서 15세기 세종대왕이 발명하였고, 현재 ‘한글’로 불린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세계 여러 민족과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무려 4천여 종류나 되는데 이 가운데 한글은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기록 문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글로 적을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하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로마 문자를 빌려서 혹은 변형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어와 같은 인도유럽어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터키어 등도 로마 문자이거나 그것을 변형한 것이다. 또한 스와힐리어, 하우서어 등 주요 아프리카 언어들과 심지어 베트남어도 로마 문자로 기록되고 있고, 이와 형태가 유사한 시릴 문자를 이용하여 러시아어 등의 슬라브계 언어들이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많은 언어들과 미주 대륙의 토착 언어들은 고유한 문자가 없어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자동적으로 로마 문자와 접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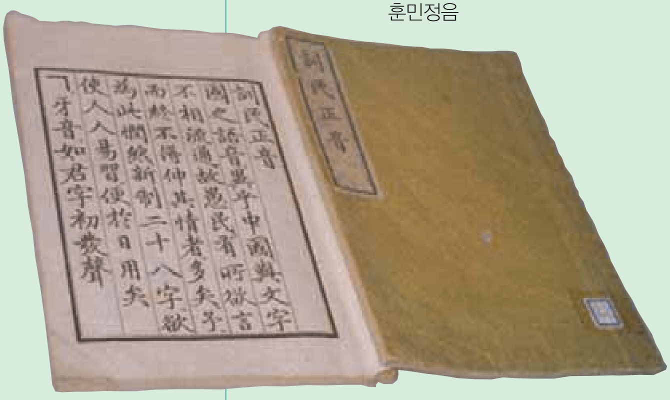
한국어를 쓰는 인구는 세계의 주요 언어들 가운데 열다섯 번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에게 자신의 말을 기록하는 한글이 있다는 것은 세계문화사적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어 세계 열다섯 번째로 많이 써

한국 역사상 ‘대왕’으로 통칭되는 임금은 단 두 사람뿐이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태왕)과 조선의 세종대왕뿐이다. 이 가운데 성군이라는 존칭이 붙은 임금은 세종 한 사람이다. 그만큼 세종은 한국의 왕조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군주인데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국방 등을 아울러 단순한 지배자를 뛰어 넘어 한민족의 원형을 완성시킨 위대한 국가경영자로도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한글 창제를 주도하여 민족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 ‘코리아’를 국내 · 외적으로 정착시킨 것이야말로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글은 조선시대에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글자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다.

훈민정음 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숙주의 18대 후손 신경준은 ‘훈민정음운해’에서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민간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있었는데, 그 수가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훈민정음

그 모양에 일정한 규범이 없어 한 국가의 말을 적어내기에는 모자란다고 적었다. 또한 고려와 탐라(제주도)에서도 한자가 아닌 어떤 고유글자가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덕무의 '청비록'에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초에 장유가 중국의 강남에 갔을 때 고려에서 떠내려간 '슬'이란 악기의 밑바닥에 쓰인 글을 중국 사람들이 읽지 못하자 그가 한문으로 옮겨 적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보아 고려에 일정한 고유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를 강력히 반대했던 최만리는 세종대왕에게 낸 상소문에서 "언문은 모두 본래 옛 글자이지 새 글자가 아니라 하는데"라는 말과 "설사 언문이 전왕조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중략) 그대로 따라 쓸 것인가"라는 말을 볼 때 그 당시 언문, 곧 훈민정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옛 글자를 기초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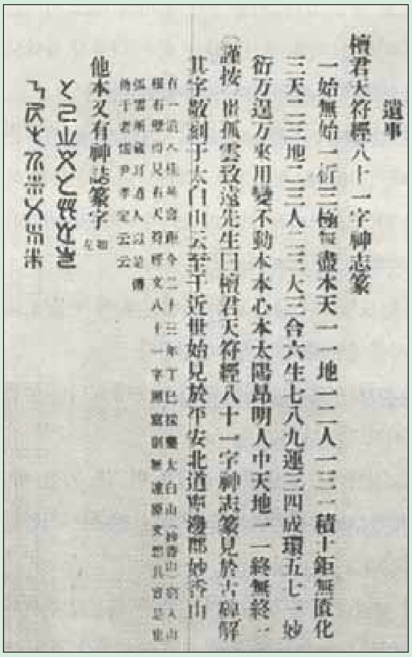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은 알려진 대로 사람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뜬 것도 아니고 중국 학설을 모방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한글의 'ㄱ, ㄴ, ㄷ' 등 자음과 'ㅏ, ㅗ, ㅣ' 등 모음은 사람의 입이나 목구멍 모양을 상형화했거나, 12세기 중국 문자연구서 '육서략'을 본뜬 것이란 학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카톨릭대학교의 이승재 교수는 고려시대 불경 등에 사용됐던 각필과 훈민정음의 자형이 일치되는 예가 무려 17개나 되며, 고바야시는 각필 흔적은 '일본문헌에 나타나는 오코도점(點)의 원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가나 문자가 한반도에서 유래됐을 가능성까지 연결된다.

15세기 후반기까지 전해 온 '삼성기'에는 "단군 때 신전(신지전자, 신지글자)이 있었다"고 하였고, 16세기초의 이맥의 '태백일사(태백유사)'에서는 "단군 때 신지전서(신지전자, 신지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태백산과 흑룡강, 청구(조선), 구려 등의 지역에서 널리 사용했다"라는 글도 있다.

일본 가나 문자에 영향 준 고조선 '신지글자'

'신지'란 '신시'라고도 표기했는데 원래 '큰 사람'이란 뜻을 가진 말로서 처음에는 '왕'을 가리켰으므로 '신지글자'란 '왕이나 지배자, 즉 통치자의 글'로 해석하기도 한다. '영변지'에서 전하고 있는 신지글자 16자는 글자 짜임의 특성으로 보아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글자이며, 글자 수가 모두 16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지글자 전부가 아님을 암시한다.

더구나 이들 글자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리에서 발견된 토기에는 신지글자와 비슷한 모양의 두 글자가 있었고, 중국의 랴오닝성 려대시 백람자에서 발굴된 고조선 토기에 새겨진 글자도 신지글자와 유사하다. 이들 글자는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와도 구별되며 몽골글자와 인도의 범자와도 구별되며 마디글자인 일본 가나자와도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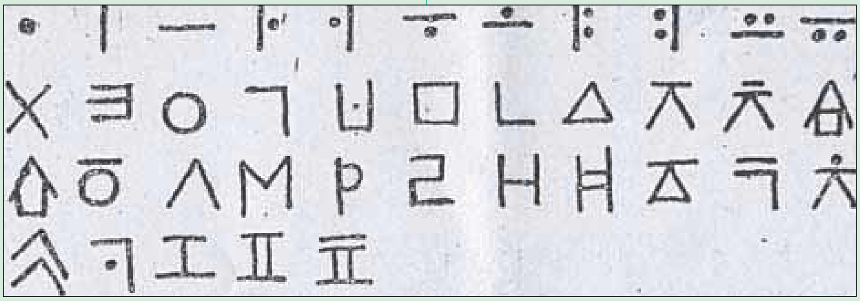

遺事
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誌篆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天一一地一二人一三一積十鉅無匱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六生七八九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万往万來用變不動本本心本太陽昻明人中天地一一終無終一
謹按 世孤雲致遠先生曰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誌篆見於古碑解
其字敬刻于太白山云云于近世始見於平安北道寧邊郡妙香山
他本又有神誌篆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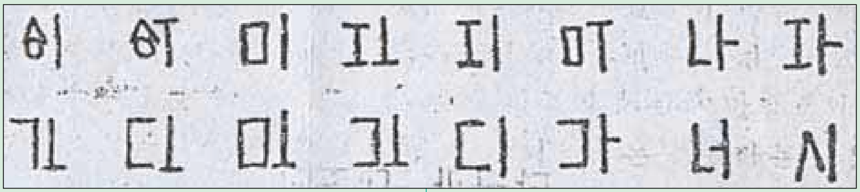
신지글자 기사, 『영변지』에 게재된 신지글자가 좌측에 보인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신지문자를 본떴다는 추정도 있다.

신지글자는 현재의 한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종실록'에 "이 달에 임금이 어문 28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본땄다"라고 기록했고 정인지도 '훈민정음 해제'에서 "글자는 옛 전자를 본땄다"고 했는데 '옛 전자'를 '신지글자'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단기고사'와 '단군세기'에는 고조선 3대 단군 가륵(嘉勒) 경자 2년(기원전 2181)에 삼랑 을보륵에게 명하여 정음(正音) 38자를 만들게 했고, 그 이름을 '가림도(加林多, 加林土)'라고 했다는 글이 있다. 이 38자는 훈민정음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고대로부터 대마도에 보존되어 왔다는 '아비루글자'는 가림도글자에서 갈라져간 것이 분명할 정도로 유사하다.

일본의 '훈석언문해'에는 훈민정음에 대해 "옛날체와 지금체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옛날체는 고조선 말기에 만들어 전하는 것이고 지금체는 이조 세종 때에 옛날 글자를 고쳐 만든 것이다. 지금 그 나라에는 옛날 글자는 없어지고 다만 지금 것만 쓰이는데 옛 글자는 곧, 지금 일본에서 전해 온 신대글자(신대글자, 肥人書, 조선 사람의 글자라는 뜻)이다"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옛날체의 글자라는 것은 곧 가림도글자를 가리키며, 그것이 비인서이





가림도글자(위)와 아비루글자

자 아비루글자, 즉 신대글자라는 것을 알려준다.

낙랑무덤에서 나오는 벽돌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글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낙랑무덤의 벽돌에 새겨져 있는 무늬는 무늬의 기본 특징인 규칙성, 반복성, 대칭성이 보이지 않고 개개의 벽돌 전체에 새겨진 것들도 있고 벽돌에 하나의 요소로 삽입된 것도 있다. 이를 '불규칙적인 기하학적 무늬'라고 부르는데 규칙성이 무늬의 근본이므로 불규칙적인 기하학적 무늬는 결국 무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무늬를 장식무늬라기보다는 오히려 뜻을 표현하는 글자무늬로 볼 수 있으며 그 글자무늬가 고대 고조선의 고유문자 ,즉 신지글자 계통의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발해도 중국 한자 아닌 고유 글자 사용

우리 나라에서 신지글자에 관한 충분한 자료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책보다 주로 돌, 뼈, 청동제품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또 신지글자는 조선시대의 정책과도 배리되어 세조, 예종, 성종 시대에 전국적으로 금지도서로 정하고 국가적으로 회수 조치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단군 말살 정책에 의해 많은 유물과 문서들이 훼손되거나 약탈되었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발견되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해에도 고유 문자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다. 중국학자 진현창은 "발해 상경에서 발견된 유물 중 기와 표면에 많은 문자가 새겨진 것이 있어 발해문자 연구의 진귀한 자료가 된다. 글 중에 한자가 10분의 8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태영 박사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발해 글자의 10분의 2가 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0분의 2가 고구려의 고문자와도 관련이 있는 발해의 특유한 고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고유한 문자를 갖고 있음이 여러 통로로 확인된다. 이시영은 '감시만어'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문화 유(柳)씨 족보에 씌어진 부여조(夫餘朝)의 왕광문, 평양 법수교에 있는 고비, 남해도 암벽에 각인되어 있는 글자, 장유(고려 광종 때 접빈사)가 중국 오, 월 지방에 가 있을 때 바닷물에 떠내려 온 거문고에 새겨진 글을 그곳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장유가 나서서 한시(漢詩)로 풀어 주었다는 동부한송정곡 따위는 모두 우리 고대 문자의 예이다. 그리고 '이태백 전서'의 옥진총담에 기술하기를 발해국에서 당나라에 국서를 보냈는데 당 조정에 그 뜻을 해득하는 자가 없는 것을 시인 이태백이 해득하고 답장을 써 보냈다고 했다.'

한족의 언어는 삼국시대에 대체로 통일되어 있었다고 추정한다. 신채호는 "삼국이 각각 이두를 사용했다"고 말했으며 정인보는 "광개토태왕비에도 간간이 이두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최태영 박사는 고구려초에 편찬된 '유기' 100권을 영양왕 11년(600)년에 태학박사 이문진이 이를 요약하여 신집 5권을 책수했다고 했는데 고사 '유기'는 고구려 문자로 길게 만들어졌으므로 간명한 한문으로 줄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고대 문자로 쓴 책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조선초까지 조선 글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요동에 열세 번이나 보내 음운을 연구토록 했다고 학자들은 추정한다. 당시에 조선 학자들이 만난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도 요동에 유배와 있었지만 그러한 현지 언어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학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ST